

장보고[張保臯] 세계의 바다를 누비며 새로운 세상 을 꿈꾸다

미상 ~ 846년(문성왕 8)



장보고 표준영정

/ 전통문화포털(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

1 개요

장보고(張保臯, ?~846)는 9세기 전반에 활동한 신라의 군인이자 상인이며 지방 세력가이다. 골품제(骨品制)라는 신라 신분제의 벽에 막혀 뜻을 펼칠 수 없었던 그는 당(唐)으로 건너가 군인이 되었다가, 신라에 귀국한 후 지금의 전남 완도(莞島)에 청해진(淸海鎭)을 설치한다. 그리고 동아시아 해상 교통로를 장악하여 국제 교역을 주도하면서 많은 부와 힘을 축적하여 큰 해상 세력을 형성한다. 신라 후기 왕위계승분쟁에도 참여하여 신무왕(神武王, 재위 839~839)을 즉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특권층인 진골귀족 중심의 신라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결국 암살을 당해 최후를 맞이한다.

2 큰 세상으로 나가 바다를 알게 되다

장보고는 신라 후기 인물로,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궁복(弓福)으로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궁파(弓巴)로 기록되어 있다. [관련사료](#) 다만 여러 기록을 볼 때 바닷가에 사는 가난한 평민 출신으로 생각된다. 당시 신라는 골품제(骨品制)라는 혈연에 바탕을 둔 신분제가 있었기에, 귀족 특히 소수의 진골귀족이 아니면 중요한 요직에 나갈 수가 없는 사회였다. 장보고는 무예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지만, 이 골품제의 벽에 막혀 신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이에 그는 함께 자란 정연(鄭年)과 함께 당 서주(徐州, 지금의 중국 장쑤성 쉬저우시)로 건너가 서주절도사(徐州節度使) 휘하 무령군(武寧軍)에 속한 군인이 된다. [관련사료](#) 정연은 나이는 장보고 보다 어려웠지만 그 기예(技藝)가 장보고 보다 뛰어나 둘은 동료이며 경쟁자로 함께 했다. 둘은 말을 타거나 창을 사용한 무술과 같은 군인으로서의 능력이 매우 탁월하여 단연 두각을 나타내었고, 소장(小將)이라는 하급 장교의 지위까지 오른다. 넓은 세상에 나가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해 나간 것이다.

당시 당은 절도사(節度使)들이 여러 지방에서 독자 세력으로 분리 독립해 나가던 분열기였다. 장보고는 당에 있으면서 지방 세력들이 군사를 양성하고 각 지역을 장악, 관리하는 모습을 보고 익혔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때 바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시기 당